

인터넷총국 (홈페이지 http://data.rutc.com)	
후원: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	
분류	구역공과-2017년 28과
제목	전도자의 절대방법①- 오직
성경	사도행전 1:13-14
일시/장소	2017년 7월 9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성경말씀 (사도행전 1:13-14)

-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1. 오직이란 무엇인가?

- 1)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 창3:4-5, 창6:4-5, 창11:1-8
- 2)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 행13:1-12, 행16:16-18, 행19:8-20
- 3) 인간의 멸망과 재앙을 해결하는 오직의 해답- 창3:15, 창6:14, 창12:1-3, 출3:18, 사7:14, 마16:16→ 행1:1, 3, 8

2. 전도자가 누릴 오직

- 1) 나에 대한 오직
 - (1) 그리스도 (행1:1)- 의사 누구가 찾은 나의 오직
 - (2) 하나님 나라 (행1:3)-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 (3) 세계복음화와 성령충만 (행1:8)- 주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성취된 것을 기록
- 2) 교회에 대한 오직
 - (1) 행2: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오직으로 원니스.
 - (2) 행2:65, 15개 나라 문이 열리는 시간표
 - (3) 행2:18, 요엘에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 (4) 행2:41,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
 - (5) 행2:46-47, 날마다...
- 3) 모든 사람 살리는 함께의 오직
 - (1) 행6:7, 죽어가고 있는 종교 현장
 - (2) 행8:4-8, 사마리아 현장
 - (3) 행9:10, 15, 핍박자 바울을 오직의 전도자로 바꾸는 현장
 - (4) 행11:19, 안디옥 교회
 - (5) 행13:1-4(5-12), 행16:6-10(16-18), 행19:1-7(8-20)

3. 전도자가 보아야 할 숨은 부분

- 1) 교회사의 숨은 부분→ 사탄이 막는 부분 “오직!” (인생문제 12가지와 재앙)
- 2) 교회의 숨은 부분→ 정답, 응답, 해답
 - (1) 행1:1, 정답-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모든 것의 정답”
 - (2) 행1:3, 응답-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
 - (3) 행1:8, 해답-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답이 있다.”
- 3) 현장에 숨은 부분→ 하나님의 목표(복음 회복과 구원), 하나님의 치유(창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 치유), 참된 힘을 주시는 오직(행1:8 성취)
- 4) 후대의 숨은 부분- 오직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 체험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라.

(The end)

♣ 구역공과 - 녹취 자료 ♣

♣ 서론

▶ 다음 주 공과는 전도자의 절대 방법 오직이다.
 1) 여러분 보통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1) 힘든 사람들(노예)
 ▶ 쉽게 말하면 천하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2) 위기(감옥)
 ▶ 또 아니면 너무 큰 위기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 이런 상황이 만나지기도 한다.

(3) 성공(총리)
 ▶ 그런가 하면 성공을 했던 말이다. 큰 응답이 왔다. 이런 수도 있다.

2) 요셉- 이 부분을 똑같이 한 번 요셉을 가지고 보겠다.
 (1)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로 가게 된 것이다. 누가 어떠한가? 그런 이유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 가게 된 것이다.

(2) 거기 가서 최선을 다 했는데 요셉은 엉뚱한 일이 생겨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다. 감옥소가 굉장히 힘들고 불안한 곳이다. 그래서 옛날에 노예 있을 때 문제가 아니라 감옥소에 있으면 너무 큰 형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 심하면 아주 큰 사형도 당하고 위기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그 때 당시에 감옥소를 생각해 보시라. 왜 옛날에 바울에다가 감옥소 넣어두면 됐지, 최고랑을 채운 건 왜 그런가? 사실은 그때는 건물들이 허술하다. 죄수를 묶어놔야 된다. 시적으로 감옥소란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3) 이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다.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그래서 우리 연약의 여정도 첫 작품이 요셉에 대한 것이었다.
 ▶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 오직
 ▶ 공통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다. 뭘니까? 오직을 찾은 것이다. 그러면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리라. 자, 다시 보자.

(1) 노예(청소)- 노예로 갔는데 사실상은 힘들고 죽을 자리다. 거기에서 오직을 찾은 것이다. 근데 오직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쉽다. 왜 쉬운가?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다 불평, 불만하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산다. 왜 채찍 들고 다니는지 아는가? 일 안 하면 막 때린다. 그것도 인간 취급도 안 한다. 인간 취급 해주면 더 일 안 한다. 그러니 막 때리는 것이다. 침묵 한 가지다. 얼마나 간단한가?

▶ 내가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보디발이 원하는 게 될지 알기 때문에 보디발이 내게 원하는 건 청소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청소를 오직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미래 걱정 전혀 하지 마시라. 오늘의 오직만 찾아 누리면 된다. 오늘의 오직을 찾아 누렸는데 잘못 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런 법이 없다. 오늘의 오직을 찾아 누리는 게 청소 잘하는 것이다. 쉬운가, 어려운가? 아주 쉬운 곳에 있다. 눈치 빠가면서 청소 하고 적당하게 하면 힘들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 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보디발이 한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행동케 하시는구나, 그렇지요?

(2) 감옥(위로)
 ▶ 이런 요셉을 감옥소에 집어넣었다. 거기서도 할 게 많은데 오직을 찾아낸 것이다. 오직을 찾아내는데 답을 전달하는데 오직 찾아내는 것도 쉽다. 총리를 제대로 답을 주면서 위로 한 것이다. 장관이다. 이 장관이 요셉이 꿈 애기한테로 출궁하게 된다. 죄수로 있을 때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 사람이 나가면 막강한 사람이다. 장관이다. 창40장을 읽어보면 기록이 장관은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 되어 있다. 사실은 장관이 출궁해서 나갈 때 요셉이 장관에게 한 부탁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까 요셉이 하나님의 오직을 누렸습니만 상황이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란 게 된다. 오직을 누렸지, 상황이 오직은 아니란 말이다.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형편이 오직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을 찾은 것이다. 장관님께서 밖에 나가면 저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말했다. 사실은 끝난 것 아닌가? 막강한 장관이 회복 되어서 왕 앞에 가는데 아, 요셉?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잘된 것이다. 거기에는 더 비밀이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게 없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하다.

▶ 요셉이 그때 만약에 왕 덕택으로 나오면 어찌 되는가? 장관 집에 청소하러 가겠죠. 전직이 청소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요셉을 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서정을 만나려고 하면 서정을 만나야 된다. 서정을 만날 수 있는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된다. 요셉은 아직 소년이다. 우리나라도 소년이 공무원 되는 법은 없다. 소년이 장관 되는 법도 없다. 요셉이 30세가 되던 날이다. 연락이 온 것이다. 왕궁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요셉은 모른다. 왕궁에서 연락

은 것이다. 그래서 가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세계 통치하는 왕, 그 막강한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른단 말이다. 틀림없이 이건 사형은 아니다. 사형은 왕이 부르지 아니한다. 요셉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겠죠, 그래서 시100:4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라고 한다. 오늘 다 그렇게 왔는가?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 있고 아이고, 또 할 수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하다. 그냥 습관상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신자가 교회 가는 게 맞지? 그런 식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모른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며..

(3)총리(위기)

▶ 위기를 맞게 된다. 왕 앞에 가서 얘기한다. 임금님께서 꾸신 꿈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더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므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인물이 있나? 물었을 것 아닌가? 그때 요셉이들 중에 하나를 말할 수 있다. 제가 원래 꿈 전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왕이 요셉을 점쟁이 모이는 곳에 보냈을 것이다. 그렇죠? 참 대답을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했다.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다고 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끝난 것이다. 항상 오직을 찾으시라.

▶ 바로 왕이 감동을 먹었을 정도가 아니다. 이게 지교회다. 여러분 지교회 어렵다고 하는데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라. 그러면 계속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사업도 오직이다. 여러분 장사 하는가? 오직이다. 나는 자동차 팔아서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도 봤다. 오직이다. 부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동성교회다. 전국에 할머니 권사다. 보험 1위하는 사람도 봤다. 오직을 잘 찾아낸 것이다. 우리 교회도 은행 전국에서 1등하는 램뉘트가 있다. 그런 인재들 잘 살펴보시라. 그게 오직을 찾아 낼 줄 아는 사람이다. 혹시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열심히 찾아내지 말고 오직으로 찾아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 자, 오늘은 이 서론 얘기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다. 거의 다 요셉을 아니까 설명해주면 된다. 그리고 공과를 보시라.

도 괜찮다. 그렇죠? 서밋 되는 것이다. 상관없다. 여러분 직업이 됩니까? 청소도 괜찮다. 서밋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알려줘야 된다. 혹시 장관이 되어도 서밋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중에서도 말씀 흐름과 오직을 찾아야 된다. 그걸 조금만 실천하는 게 6일 동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많은 틀린 가짜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는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기도하겠다.

(기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신 오직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증인이 되도록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 end)

1.오직의 이유

▶ 오직의 이유다 나왔잖아요. 멸망,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오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2.오직의 내용

▶ 오직의 내용이 나왔다. 이 일의 오직 말고 근본이 나왔다. 자, 본문에서는 근본을 다뤄주는 것이다. 서론은 일이다. 본문은 근본을 다뤄주는 것이다. 나에 대한 오직이다.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다. 그렇죠? 나에 대한 오직은 서론은 응답이고 나에 대한 오직 근본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다. 됐죠? 교회에 대한 오직이 됩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거기에서 오직을 찾으시면 된다. 모든 사람에게 대한 오직이 있다. 그게 됩니까? 증거인데 함께 하는 증거다. 그러면 된다.

3.오직의 숨은 부분

▶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오직의 삶도 숨은 부분이 있다. 그렇잖아요? 오직이 숨겨져 있는 게 많다. 드러나 있는 것도 많지만 숨겨져 있는 것도 많다. 자, 교회 가면 우리 많은 일들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사에 흘러오는 숨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제 설교를 전 세계 목사님들 특히 이단 사이비 연구하는 분들이 듣고 계신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교회사의 흐름은 항상 교회가 복음을 없앤 것이다. 그때마다 복음을 찾아 내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것이다.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무조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단 누명 찍혔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봤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된다.

▶ 또 숨겨진 부분이 됩니까? 교회다. 교회는 말이죠, 1,38 가지고 답 찾아야 되는데 그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란 걸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교회다. 현장 가면 뭐 하는가? 창3,6,11장에 빠져 있다. 모르고 있다. 거기에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우리 후대들 어떠한가? 여러분 이걸 안 가르쳐주면 후대들 죽어간다. 나는 진짜 부모님들 아이 키우면서 조심해야 된다. 아이들을 잘못하면 평생 고생시킬 수 있다.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러가지고 부산에는 제게 치료 받는 청년 하나가 부모가 너무 공부 강조해서 애가 돌아버렸다. 내가 알기로 아직도 고칠 못 받았는데 수영로 교회에 있다. 수영로 교회 교인인데 아버지가 서울 대 출신이다. 어머니 서울 대 출신이다. 자기도 서울 대다. 그 딸도 서울 대다. 아들 한 명 있다. 이게 부산 대 들어간 것이다. 얼마나 부담 되는지 돌아버린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신자들도 그러고 있다.

◆결론

▶ 너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가르쳐야 된다. 노예로 가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data.rutc.com ② http://www.jcking.net	
총 국 장 :	김성호 목사 (☎010-3505-5684)
실무국장 :	차동호 목사 (☎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